

# 국민안전은 뒷전(Safety-Last)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

- 국세청, 2021. 8

- (추진배경) 최근 코로나 재확산,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
  - 코로나 위기 상황에 올라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, 고가 요트·최고급 승용차 구입 등 나 홀로 호화·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  - 이에,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.
- (조사대상) 불법·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·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,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.
- (향후계획)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, 재산형성과정, 생활·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.
  - 국세청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
  -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.

## I

### 추진배경

- 최근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,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과 소상공인·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,
  -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올라타 불법·불공정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사익만을 추구하며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



- 또한, 이들은 법인 명의로 호화 요트·최고급 승용차·명품 등을 구입하며 나 홀로 호화·사치생활을 누리고,
  -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.
- 이에,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경제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을 운영하면서도

**【코로나19 극복·경제회복을 위해 시행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 대상】**

▷ 자영업자·소상공인, 코로나 피해 업체, 매입증대·선결제 기업, 일자리 안정·창출 기업, 투자확대 기업, 창업기업·혁신 기업

\* '21년 하반기부터 집합금지, 경영위기 업종 등(「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」)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추가

-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·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.

·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(21. 8. 13.)에서 “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”해야 한다고 강조

## II

## 조사대상 선정

- 국세청은 경제동향·신종산업·언론보도 등에 대한 점검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·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·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.
  - 이를 통해 불법·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·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①, 서민·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②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.
- 【유형①】 불법하도급·원산지 위반·부실시공 등 불법·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로
  -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(약 10억 원), 최고급 승용차(5대 약 10억 원), 고가 명품시계 등(약 3억 원)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, 고액의 승마비용(1억 원 이상)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.
- 【유형②】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서민·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로

- 미등록·명의위장,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·코마빌딩을 취득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되었습니다.

### III 지난 추진성과

-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·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,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,16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.
-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,
- 5월에 착수한 신종·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### IV 향후 계획

-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,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·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
  -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.
  -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, 재산형성과정, 생활·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여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격하고 바르게 조치할 계획입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
  -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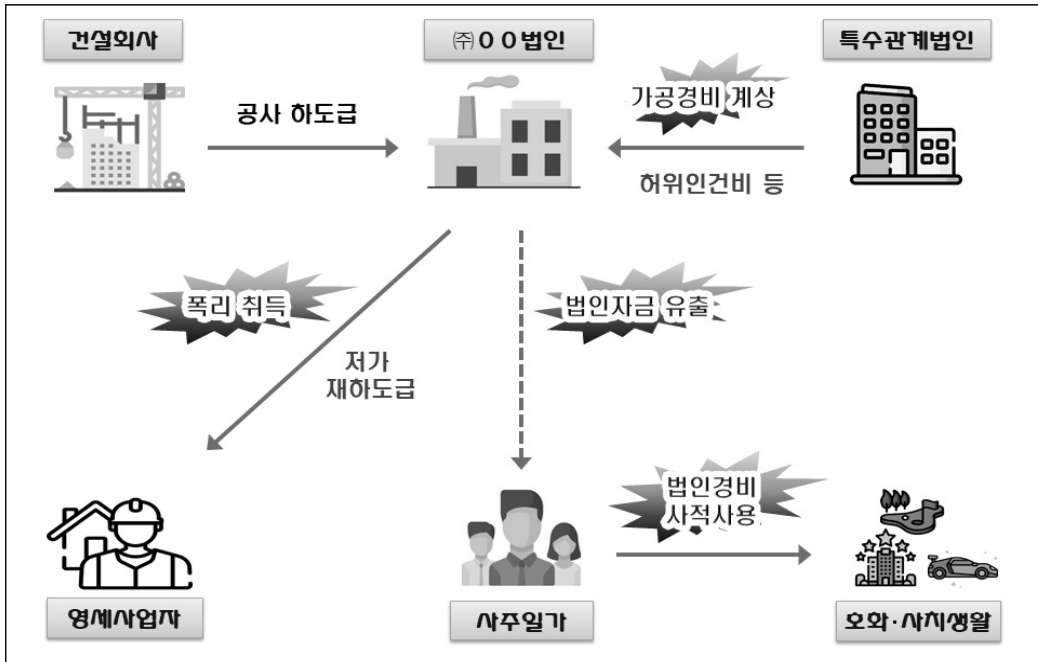


## 붙임 1 - 이번 착수 사례(3개)

## 사례 1

## 과도한 단가인하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·허가 독점업체

\*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



## ● 주요 탈루 혐의

- ○○○은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며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,
  -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,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
  - 또한,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
- 사주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사적용도의 최고급 자동차 등 5대(취득가액 약 10억 원) 구입, 호텔·골프장 이용 등 호화·사치생활을 영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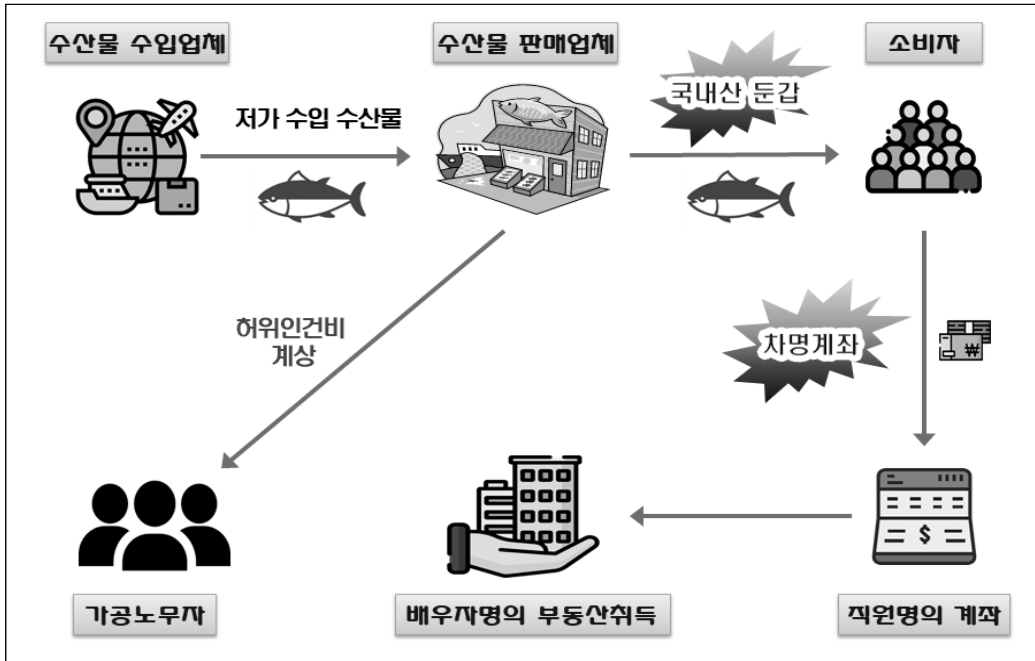
## ● 조사 방향

⇒ 가공경비 계상 및 법인비용 사적사용 혐의 검증

## 사례 2

###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수산물 판매업체

\* 값싼 수입산 수산물을 수배 비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하고, 판매대금은 직원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



#### ● 주요 탈루 혐의

- ○○○은 수산물 도소매업체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
  -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선호하자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
  -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,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 탈루
-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 원 대 배우자 명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

#### ● 조사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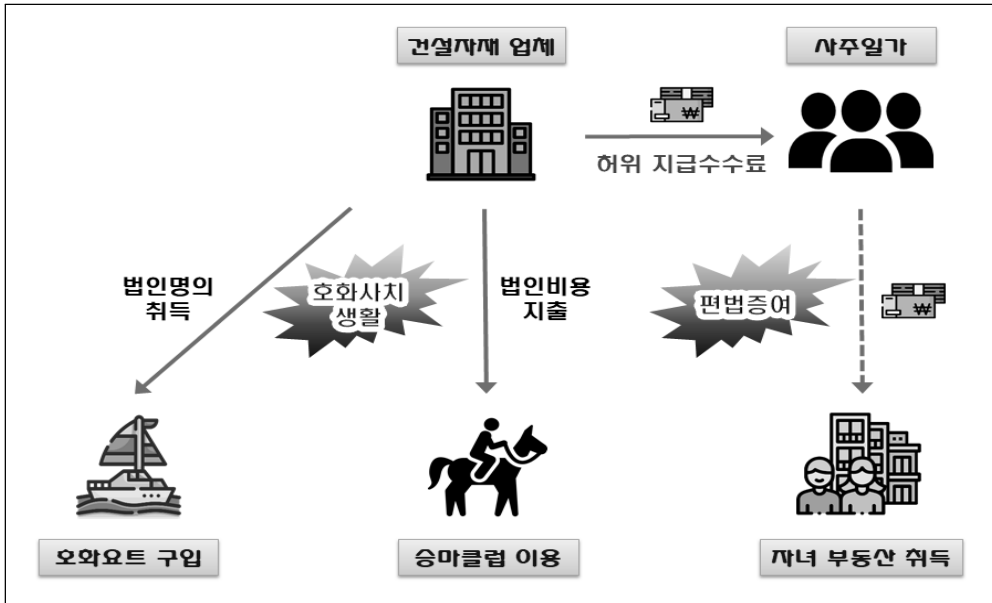
⇨ 차명계좌 이용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



## 사례 3

## 법인명의 고가요트 취득, 승마비용 지출 등 호화사치 건설자재 업체

\* 친인척들에 대한 허위 지급수수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, 사적으로 사용한 호화요트·승마클럽비용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



## ● 주요 탈루 혐의

- ○○○은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업체로
  -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,
  - 법인명으로 업무와 무관한 고가 호화요트(약 10억 원)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경비로 부당하게 처리
  - 또한,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(1억 원 이상)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
- 사주는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(시세 30억 원)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후 증여세 신고누락

## ● 조사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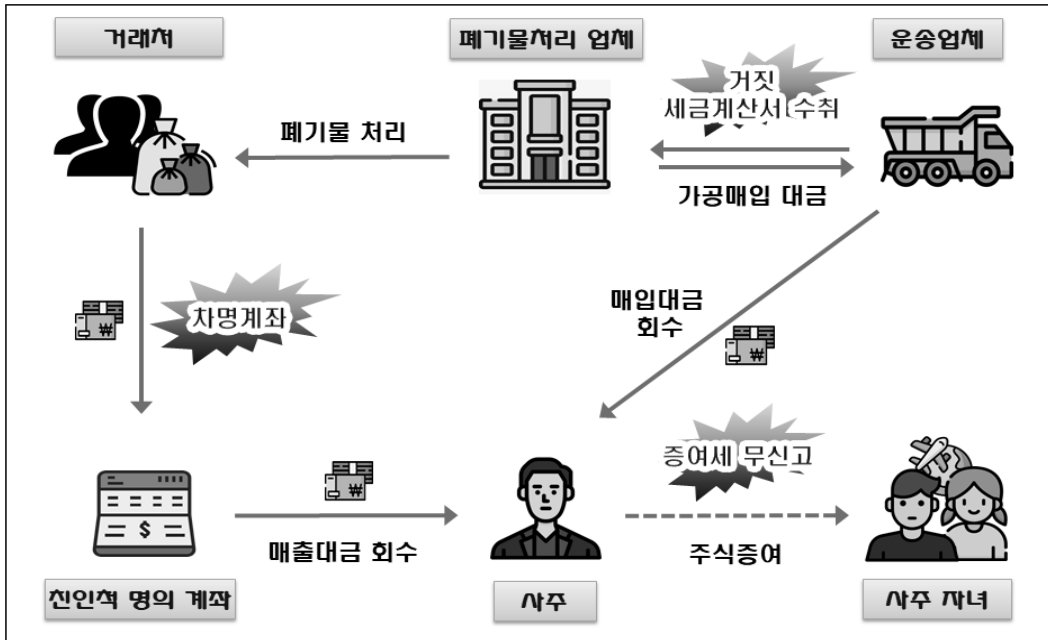
⇒ 허위 지급수수료, 법인경비 사적사용,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

## 붙임 2 - 지난 조사 사례(5개)

### 사례 1

####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수입을 누락한 폐기물처리 업체

\* 폐기물처리 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



#### ● 조사 내용

- ○○○은 오랜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중견업체로,
  -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 처리하면서 매출이 증가하자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(약 100여억 원)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
  - 우월적 지위로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종용하며 차액(약 20억 원)을 돌려받아 소득 탈루
- 또한, 고의적인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가치가 하락한 법인의 주식을 해외 유학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

#### ● 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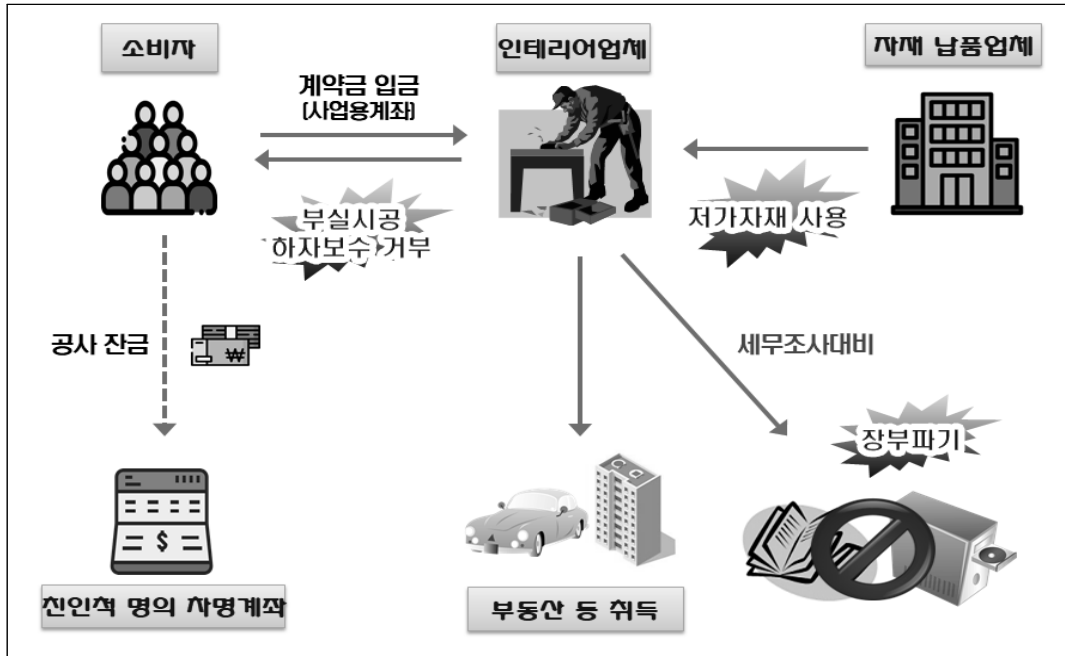
⇒ 법인세·증여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,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



## 부실시공·하자보수 거부로 피해를 주는 인테리어 업체

## 사례 2

\* 부실시공 후 하자보수 거부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수입금액 탈루



## ● 조사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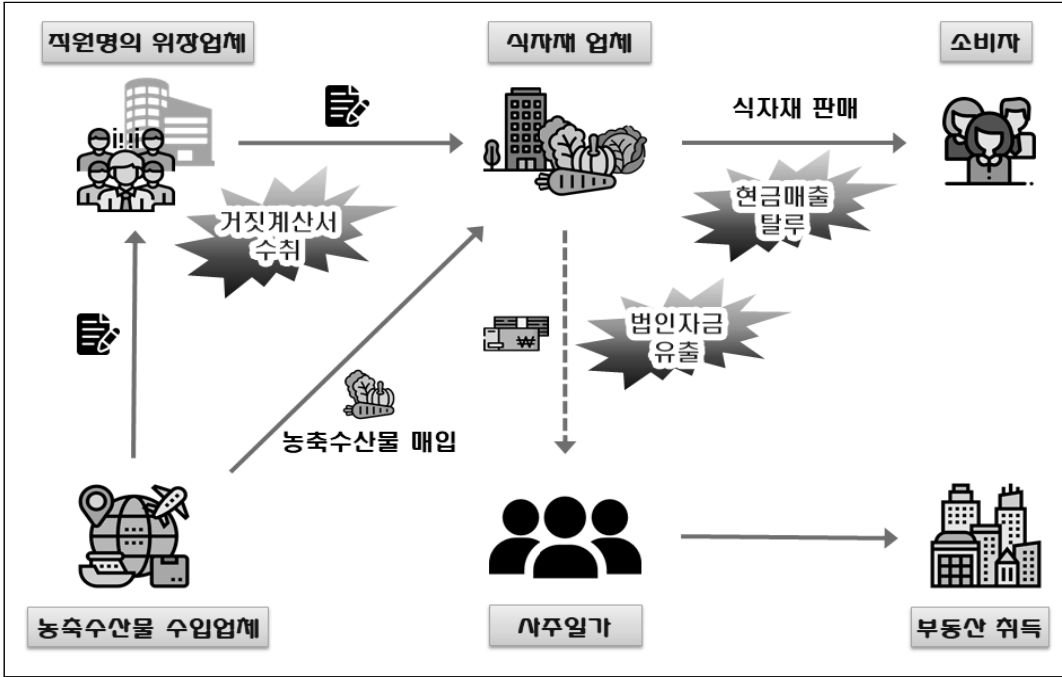
- ○○○은 최근 집꾸미기 수요 증가에 따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로
  -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는 다른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고, 하자보수는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
-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,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탈루
  -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즉시, 공사계약서 원본 및 관련 장부를 전부 파기하여 근거를 의도적으로 은폐
- 탈루 소득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, 해외여행 및 고가 승용차 구입 등 호화생활 영위

## ● 조사 결과

⇒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,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



**사례 3**     **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매출을 탈루하며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 업체**  
 \* 현금할인 조건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현금매출을 탈루하고,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산지 둔갑 및 거짓계산서 수수



● 조사 내용

- ○○○은 농축수산물·공산품 등을 취급하는 대형 식자재 업체로 지역 최저가 등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자
  - 현금판매 할인을 적극 홍보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고액은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나눠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을 숨김
  - 농축수산물 수입업체 등과의 거래에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끼워 넣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,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거짓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법인소득 탈루
- 사주일가는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상가·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여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형성

● 조사 결과

- ⇒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정, 거짓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